

[사회]

금추기경 ‘사랑의 바이러스’…장기기증 서약 ‘밀물’

최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안구 기증이 후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장기기증 서약이 줄을 잊고 있다.

“죽어서 알 뜻 보는 이들에게 세상의 빛을 전하고 싶다”며 각막을 기증한 고(故) 김 추기경의 ‘사랑 바이러스’가 뜨겁게 번지고 있는 것이다.

9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장기기증재단(옛 광주전남장기기증재단) 등에 따르면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3주가 지난 이날까지 장기기증 서약자가 선종 이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장기기증과 관련한 서약 절차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전화나 관련 단체를 직접 방

광주·전남 2월 347명…선종 이전의 4배

사회 지도층·저명 인사는 적어 아쉬움

문하는 사람들도 10배 이상 늘었다.

특히 선종 후 4일 만인 지난 2월20일께 나주에서 숨진 80대 할머니가 각막 기증을 유언, 깊은 이 2명에게 각막 이식이 이뤄졌다. 이 할머니는 사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한 적은 없었지만 자식들이 각막 이식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생전의 모친 유언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경우 지난 1월 장기기증 서약자가 84명이었으나 추기경이 선종(2월16일)한 2월에는 무려 347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지난 7일 개최한 ‘장기기증 캠페인’에는 하루 동안 무려 240명이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장기기증재단 이승현 총무국장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서민들이 서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많지만 공급되는 장기는 늘 부족한 만큼 지금의 분위기가 스쳐가는 열풍이 아니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약자가 하루 2~3명이었으나 선종 직후 10명 까지 늘었으며, 3월 이후에도 꾸준히 5~6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사회 지도층이나 저명 인사 등 장기 기증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서약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장기기증재단 이승현 총무국장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서민들이 서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많지만 공급되는 장기는 늘 부족한 만큼 지금의 분위기가 스쳐가는 열풍이 아니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합장 선거 돈봉투 난무

15곳 중 7곳에서 불법·탈법

광주·전남 선관위 11명 고발·5건 수사 의뢰

광주·전남지역의 각종 조합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을들어 치러진 15곳 중 절반 가까운 7곳에서 불법·탈법 사례가 적발됐다.

9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치러진 15개 조합장 선거에서 장성농협 등 7곳에서 9건의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를 중 금품 제공 등 2건에 대해 11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5건은 수사의뢰, 2건은 경고 조치 했다.

선관위는 특히 최근 치러진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30만원씩 활동비를 제공한 후보자와 이 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 8명 등 10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 조합원 3천865명에게 ‘자수권유 안내문’을 발송,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

해남·구례·광주지역 농협 3곳에서도 기부행위 의사표시 위반과 조합원들에게 금품 및 학용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해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됐다. 회순·장성 등에서도 문자메시지, 불법 인쇄물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드러나 선관위가 수사의뢰, 경고 조치 했다.

이처럼 불법·탈법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인사 청탁에 노출되기 쉬운데 조합원이 많지 않아 일부만 ‘포섭’하면 쉽게 당선되는 제도상의 문제 등도 작용한 탓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도·농 복합지역이나 조합 통합지역의 경우 주민 간 알력으로 과열 양상을 빚으면서 불법·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추장서 발암 물질

식약청 “위해성 없다”

고추장 등에서 발암성 물질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밤과과정에 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 함유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발효식품 중 에틸카바메이트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연구를 실시한 결과 고추장 등 장류에서 최대 240ppb가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도 평가결과 유통 중인 발효식품은 대부분에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교과부 장관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9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송정초등학교를 방문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안순일 광주시교육감(네번 째) 등이 아이들의 수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l@kwangju.co.kr

실종자 가족들 “10일 동안 도대체 뭐했나”

해경 신안 침몰 선박 수색 사실상 종료에 ‘분통’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선원과 선박에 대한 수색이 이렇다 할 성과없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은 9일 “지난달 25일 가거도 해상에서 실종된 정진호(포항선적·341t)와 선원 5명에 대한 해군과의 합동수색을 8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해 대체 실종자 가족들은 “1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 찾은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사고발생 이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선사 측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실종된 유진군(54) 선장의 부인 이모(49)씨는 “최선을 다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아쉬움이 너무 크다”며 “무엇보다 처음부터 정진호와 통신두절 사실을 늦장 신고한 선사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10일 선사인 (주)한진 광양지사를 찾아 회사 측의 늑장 대처 등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물 06시 50분
해진 18시 36분

달밤 06시 02분
달점 17시 48분

햇살 좋은 아침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광 주	맑은 뒤 조금	2/14°C
목 포	맑은 뒤 흐림	6/13°C
여 수	구름 조금	6/13°C
완 도	맑은 뒤 흐림	3/14°C
구 래	구름 조금	-1/16°C
해 남	맑은 뒤 흐림	0/14°C
장 흥	맑은 뒤 흐림	0/15°C
고 용	구름 조금	3/16°C
순 천	구름 조금	3/15°C
영 광	맑은 뒤 흐림	-1/11°C
전 도	맑은 뒤 흐림	2/14°C
전 주	구름 조금	0/12°C
남 원	구름 조금	-2/14°C
흑 산	맑은 뒤 흐림	4/9°C

비 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북~북동	1.0~1.5m	목포 01:20 13:55	06:43 19:13
면비다	북~북동	1.0~2.0m	여수 08:44 20:59	02:20 14:4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날씨	풍향	파고	밀물	썰물
2/14	날씨	11(수)	12(목)	13(금)	14(토)
3/14	최저/최고	7/9	-1/5	-2/10	1/14

방기상청은 기상예보서비스와 유관기관서비스, 홍보활동 평가 등 3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선전했다.

나머지 1개 분야인 민원행정서비스는 2위를 기록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광주지방기상청(청장 진기범)은 기상청 소속 기관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2008년 하반기 기상 서비스 종합만족도 1위(전국 6개 권역 중)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광주지방기상청은 기상청이 민간 조사기관인 알엔에이에 의해 지난 12월 1일~7일 동안 지역주민과 민원인 등 4천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세포로 직접 약물 전달 나노주사기 개발

광주과기원 연구진

목을 받고 있다. 특히 연구진들이 개발한 기술은 세포 내로 물질 전달이 어려웠던 줄기 세포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이 분야 발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결과는 최근 나노기술(NN) 분야의 저명 국제학술지 ‘나노 레터스(Nano Letters)’ 온라인판에 소개됐다.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나노미터(nm = 1억분의 1m) 크기 수준의 텐소나노튜브를 기관 위에 수직으로 배열한 나노주사기를 제작, 약물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을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